

◆ 정부의 '93 주요업무 추진계획(Ⅱ)

기본목표

- 기술자립화 기반구축
- 중전기 산업의 구조고도화
- 중전기 산업의 발전여건 조성

'93 주요추진시책

- 수출촉진 및 수입관리 강화
-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의 지속적 추진
  - 기술개발 지원자금 확충 등 기술개발 분위기 조성
  - 대형기술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
- 중전기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기반 구축
  - 중소기업의 전문생산체제 확립
- 중전기 산업의 발전여건 조성
  - 한전의 중전기 구매제도 개선 등 업계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여건조성

## 1. 수출촉진 및 수입관리 강화

### 가. 수출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92 실적	→	'93 목표
1,273백만불 (11.6%증가)		1,450백만불 (13.9%증가)
경쟁국의 저가공세, 자국내 공급기반 확충, 국산제품의 품질미흡 등으로 수출증가를 둔화 전망		

####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조사활동 강화

- 중국, 중남미등 전력, 통신시설, 확충계획 추진지역에 대한 시장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를 회원업체에 적극 홍보

#### ○ 기존 수출시장의 지속적 확보

- 품목별 수출협의회 구성 운용으로 입찰정보 교류, 저가수출 지양 및 사후관리등 공동 대응 방안 강구

#### ○ 중전기 종합전시회 개최 및 해외전시회 적극 참가

- '94년 하반기부터 중전기 종합전시회 개최 추진

- 전기진흥회내 추진기구 설치 (각 단체참여)
- 중전기 수요기관, 연구기관, 생산업체의 공동 주최

- 해외전시회 적극 참가유도

- 중소기업의 참가 소요경비 지원방안 강구
- 종합카드로그 작성 소요경비 지원

#### ○ 세계 중전기 구조개편에 따른 선진국의 공동화 품목조사

- 연구기관에 용역의뢰 예정

- 공동화 품목에 대한 지역별 수출방안 수립

나. 수입절감 대책 추진

'92 실적	→	'93 목표
2,027백만불 (3.0%증가)		2,355백만불 (16.2%증가)
국내산업의 설비투자 확충등에 따라 중전기기 수입증가 전망		

○ 국산 중전기기의 성능미흡 인식 불식

- 국산개발 제품의 성능, 신뢰도 등의 시험검사 성적 홍보

• 각 단체의 정기간행물에 고정 홍보란 설정

- 중전기기 수요기관, 수요업체 관계자의 중전기기 생산업체등 견학실시

• 중전기기 연구기관, 우수생산업체의 방문을 통해 국산제품의 우수성, 연구개발 성과 등의 현장 확인 실시

○ 국산개발 부품 및 소재의 우선 사용 촉진

- 국산개발부품 사용등에 따른 직접 소요경비 지원

(예) 국산진공밸브 사용시 진공차단기의 설계비, 시험비 등의 지원

• '93년 10억원 확보계획 (한전기술개발 자금)

- 국산개발품 사용 기피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 국산품사용 촉진협의회 활동강화-품목 및 업체조사

• 기술개발자금, 외화대출, 세제지원 혜택 배제

○ 국내 시장개방 대비 국내 생산업체 보호책 강구

- GATT 정부 조달협정 추진시 한전의 적용제외 추진

- 시장개방 예상품목에 대한 조기구매계약 체결 추진(전선류)

○ 기술개발 자금지원시 수입대체 효과의 우선 고려

## 2. 기술개발의 지속적 추진

### 가.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의 지속적 추진

#### (1) 기술개발 대상과제의 발굴

- 전기기기 국산개발 협의회 운용활성화
  -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활동성 강화
- '93년중 도시형 변전소(GIS)등 100개 기술개발 과제 발굴 및 지원
  - 핵심부품, 소재개발에 주력

#### (2) 기술개발 지원자금의 지속적 지원

- 한전자금 : 신규과제에 대한 계속지원 협의 (년간 200억원 이내)
- 공업발전기금 : ('92) 20억원 → ('93) 30억원 지원 협의

#### (3) 대형기술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

- 배전자동화시스템 개발 3차년도 개발계획 조기달성
- 765KV급 전력기기 개발 2차년도 개발 추진
- Electro-21 개발사업의 실적거양
  - 소형모타, 고성능건전지 개발 촉진

#### (4) 기술개발 지원과제의 사후관리 강화

- 연구개발 추진내용의 정기적 평가 (년 2회)
- 부진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강구

## 나. 기술개발 분위기 조성

###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확대

(’92) 60개 → (’93) 80개 (20개 설립 목표)

### ○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 확대

- 연구기관의 기술지원이 곤란하거나 국내 규격통일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연구조합 설립 추진

- (’92) 소형모터, 공업로 → (’93) 발전기, 전동기 연구조합 설립 추진

### ○ 해외전기기술 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전기조합)

- 활동소요예산 증액 및 인원보강

- 업계의 필요정보 수요조사 실시로 업계요구에 부응

### ○ 기술선진국과의 업무협력 강화로 기술이전 촉진

- 한·러 전기공업협의회 개최(’93. 10 서울) → 교역 및 기술이전 협의

## 다. 등급공장 지정 확대

### ○ 품질관리 등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관수용 시험검사 면제추진

-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시 배점비율 상향조정 추진

### ○ 등급공장 확대 (’92) 53개사 → (’93) 70개사

- 선진국 수준의 불량율 유도

(다음호에 계속)

# 1. 政府關聯 施策

## ◆ 商工資源部, 産業構造 에너지節約型으로

- 상공자원부는 작년 6월 개최된 리우 UN환경회의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적극 대응, 금년중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 에너지탄성치(GNP 성장을 대비 에너지 소비증가율)를 '91년의 1.3에서 '96년에는 0.85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우리 산업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 구조로 개편해 나가고 오는 '96년까지 총 980억원을 지원, 에너지절약기술 100대 과제를 개발하며 '97년까지 대체에너지 개발에 1,83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업계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 올해 석유사업기금과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등에서 지난해보다 41.8%가 증가한 1,573억원을 지원하는 등 자금 및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업계의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촉진을 위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준비금 제도를 도입하고 250개 중소기업에 대해 무료에너지 사용진단 및 현장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을 위해 '92년에 5,200개 에너지소비업체 및 학계·연구계를 대상으로 조사, 선정한 에너지절약기술 100대 과제중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가 큰 10개분야를 중점개발대상으로 선정, 정부주도로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해 국산 신기술제품의 우선 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중점개발 10대 과제는 농축·건조공정 최적화시스템, 소형열병합시스템 개발·보급, 고효율에너지변환·축적시스템, 미활용 에너지종합이용시스템, 고효율유도전동기, 공정부생가스활용기술, 에너지관리를 위한 자동제어시스템, 건물의 에너지절약형 외피·단열시스템, 고성능 로 및 가열장치, 연비저감 고성능엔진 등이다.
- 또한 총에너지 공급중 대체에너지 비중을 '92년의 0.4%에서 '97년까지 1.3%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97년까지 태양열·태양광·바이오·연료전지 등의 개발에 1,830억원을 투자하고 대체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세계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장기전력수급계획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원구성을 조정해 나가고 청정연료인 LNG보급을 촉진키

위해 LNG인수기지 및 배관망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 수송분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현재 일반승용차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연비표시제도를 승용겸 화물, 지프형승용차등 모든 승용차로 확대 실시하고 경승용차에 대해 LPG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산업분야의 경우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증가율을 10%이내로 억제키 위해 계절별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를 개선하고 공업단지등의 집단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상공부는 이밖에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할 경우 의무사항으로 돼있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국가보고서를 에너지경제연구원등 11개 국책연구소를 통해 '95년말 까지 작성토록 하고 일본·중국등 인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商工資源部, 일렉트로-21 '93年 施行計劃 發表

- 상공자원부는 전자정보산업분야 핵심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올해 지난해보다 4배 이상인 총 200억원을 이 분야에 지원, 전자세라믹부품 등 48개 핵심부품을 개발키로 했다. 또 기업이 자체개발을 완료한 표면탄성파필터 등 9개과제는 생산전문화업체를 지정, 설비자동화자금 등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 상공부가 발표한 '전자핵심기술개발계획(일렉트로-21) '93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원해 온 소형고주파부품 등 18개부문 26개 과제에 종합정보서비스망(ISDN)용 광섬유등 22개 과제를 추가, 총 48개 과제에 대해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규모도 지난해 48억원(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 26억원, 공업발전기금 22억원)보다 4배이상인 200억원(공기투자금 70억원, 공발기금 130억원)으로 대폭 확대,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또 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와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지원대상업체 선정기관을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의 전문요원을 협력관으로 지정, 기술개발과 생산·판매 등을 연계지원키로 했다.
- 이와 함께 표면탄성파필터 등 6개분야 9개 과제를 생산전문화지원대상으로 정해 지정된 생산전문화업체에 대해서는 설비자동화자금등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올해 신규 지원되는 1차지

원대상 22개과제는 오는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접수, 6월중 심의 지원하고 '9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2차 지원대상 26개 과제는 10월11일부터 23일까지 접수, 11월중 심의후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전문화 대상과제는 2차 지원대상 과제와 같이 10월11일부터 23일까지 접수키로 했다.

- 이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총 연구개발사업비의 30-50%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과 공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총생산설비투자비의 70%까지 정책금융을 지원하며 생산전문화업체에 대해서는 생산품목의 특화지원, 생산설비자금의 우선지원 등을 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 연구조합 등을 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 전자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업체면 모두 가능하다.
- 전자핵심기술개발계획은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거나 전락화할 가능성이 높은 전자핵심기술과 부품을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기술개발전략과 개발방법을 사전에 설정한 후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정부가 1,520억원, 민간이 2,280억원등 총 3,8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에는 전자핵심기술의 자립기반 확충은 물론 전자제품의 국산화율이 현재의 67% 수준에서 '96년에는 75% 수준으로 높아지고 연간 1억달러의 기술료절감과 175억달러 상당의 수입대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 세부내용 : 진흥회 조사과 문의)

#### ☐ 第2次 經濟部 行政規制 緩和 計劃 (商工資源部)

- 무역대리업 登錄資格 維持要件을 현행 연간 手數料 收入 3만불 이상에서 2만불 이상으로 우선 완화('93. 6)하고, 國際收支 好轉時 登錄制 폐지 검토
- 지방소재 纖維業體의 輸出時 FAX를 활용하여 현지에서도 輸出推薦이 가능토록 개선('93. 6)
- 교통부의 航空機 導入認可時 상공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여 事後 輸入推薦 절차가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93. 5)
- 주한미군 軍納業의 등록제 폐지('93. 12)
- 輸入先 多邊化品目 예외수입 허용시 과다한 검토절차 간소화 ('93. 5)



- 機械鹽, 再製鹽, 加工鹽 등의 제조허가제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참여 허용 ('93. 12)
- APT건설업체가 건축한 團地內 商街管理義務를 면제토록 都小賣業振興法 개정 ('93. 12)
- 3천KW이하 용량의 소수력 發電設備 설치허가제를 폐지 ('93. 7)
- 電氣安全管理擔當者 자격기준 완화 ('93. 6)
  - 기사 1급 3년 경력 → 1년, 기사 2급 5년 경력 → 2년
- LPG 충전소 安全管理者 자격 및 채용기준 완화 ('93. 6)
  - 저장능력 500톤이상 : 4명 → 3명 채용
  - 저장능력 100~500톤 : 4명 → 2명 채용
  - 저장능력 30~100톤 : 3명 → 2명 채용
- 도서·벽지의 電氣安全管理擔當者 선임기준 완화 ('93. 6)
  - 현행 300KW이하 → 500KW이하

#### ◆ 상공자원부,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 변경

- 상공자원부는 동력자원부고시 제90-35호('91. 6. 29)로 고사한 바 있는 345KV 선산변전소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고시 했다.
  1. 사업의 명칭 : 345KV 선산변전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 사업의 변경사유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원개발사업 구역의 일부 조정 및 용지매수 지연에 따라 변전소 건설사업이 일부 변경됨.

#### 4. 사업개요

- 전원설비 : 옥외 GIS형
- 사업기반
  - 당초 : 1991년 6월~1993년 11월
  - 변경 : 1991년 6월~1994년 6월
- 사업구역
  - 당초 : 156,482m<sup>2</sup>
  - 변경 : 155,087m<sup>2</sup>

#### ◆ 工振廳, 開發技術의 사업화촉진 요령 告示

- 工業振興廳은 최근 기술경쟁이 국제적으로 치열해지면서 제품 및 기술의 수명주기가 단축,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개발기술의 시장진출 시기가 중요한 국제경쟁력 확보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기술에 대해 사업화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요령'을 제정(공업진흥청 고시 제 '93-164호, '93. 5. 21) 시행에 들어갔다.
- 이 요령에 따르면 기업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진흥공단등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할 경우 공진청이 우수기술로 평가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사업화자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또한 사업화에 성공한 제품이 최초단계에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평가, 일정기준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신기술제품'이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평가절차는 해당업체가 개발기술의 사업화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기술평가를 공진청에 신청하면 공진청은 공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학계·연구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술로 평가된 경우 이를 중진공등 관련 지원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돼있다.
-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대상 기술은 시제품(실험실에서 합성된 물질을 포함)형태로 형상화된 기술(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 포함)로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품목, 기계류

부품 및 소재 국산화품목으로 지정돼 개발된 품목, 창업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 기타 공진청장이 정한 품목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개념적 기술 또는 신창기업 생산라인에만 사용되는 범용성이 적은 기술은 제외키로 했다. 개발기술의 평가기준은 국가규격(KS)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규격이 없는 기술은 국제규격(ISO)이나 외국의 국가규격을 적용하며 이같은 규격조차 없는 경우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정해 객관성과 공신력이 있도록 했다.

## ◆ 공진청,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에 관한 지침중 개정(안) 입법예고

○ 공업진흥청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에 관한 지침중 개정(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기술규정 등에 관련된 규칙안 입안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 공고 제 '93-599호('93. 5. 15)로 공고했다.

### 1. 개정취지

제조업체의 업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내용을 간소화하고 보고내용을 줄여 편의를 도모하므로서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생산개시 보고제도 폐지
- 나. 생산실적보고 폐지
- 다. 전기용품 사후관리처리기준 보완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199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업진흥청(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안전관리과 503-7927)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 2) 성명(단체의견은 단체명과 대표자)

## ◆ 工振廳, 産業標準化 大賞 褒賞 對象者 接受

○ 工業振興廳은 산업표준화의 확산과 KS표시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우수한 KS업체를 발굴  
“'93 전국 품질경영촉진 대회”시 포상할 계획인 바, 우수한 KS표시허가 會員業體의 많은 참  
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목적

산업표준화의 확산을 촉진하고 KS표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의 실시  
상태가 우수한 KS표시허가 업체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광공업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  
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포상부문

- 대기업부문
- 중소기업부문

### 3. 포상종류 및 훈격

- 대상 : 대통령상
- 우수상 : 대통령상

### 4.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 산업표준화의 실시상태가 우수한 KS표시허가업체

나. 신청기간 : 6. 1~6. 30

다. 신청서류

-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2) 사내표준화 현황 및 표시품 품질보증체제 설명서 30부 (별지 제2호서식)
- (3) 최근 1년간의 외부전문가 초청지도 및 교육실시 현황 1부 (별지 제2호서식)

라. 접수기간 : 한국표준협회 표준부 (전화 : 3698-232~3)

### 5. 시 상

『전국품질경영 촉진대회』에서 시상함 ('93. 11월 예정)

## 6. 수상업체에 대한 특전

- KS표시 허가업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2년간 면제함.
- KS표시 허가제품 및 홍보물에 수상내용을 홍보할 수 있음.

## 2. 會員社 動靜

### ◆ 大韓電線(株), 알루미늄 공장 建設 推進

- 大韓電線(株) (代表 : 兪彩濬)가 최근 전선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분야를 강화하고 비철금속 분야를 電線과 함께 그룹의 주력사업으로 育成키로 했다.
- 同社는 이같은 전략에 따라 총 4,200億원을 投資하여 알루미늄 공장을 건설하는 한편 中國에 대규모 전선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海外進出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 ◆ 寶星重電機(株), SF<sub>6</sub> 절연부하개폐기 KS表示許可 獲得

- 寶星重電機(株) (代表 : 林都洙)는 최근 工業振興廳으로 부터 가스(SF<sub>6</sub>) 절연부하 개폐기에 대하여 KS表示許可를 獲得했다.
- 獲得內容

허 가 번 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10057 호	KS C 8330	가스 (SF <sub>6</sub> ) 절연 부하 개폐기

### ◆ 三星航空産業(株), 中國에 PLC 첫 輸出

- 三星航空産業(株) (代表:李大遠)가 최근 국내 PLC업계 최초로 중국 최대 산업용기기 업체인 天津自動化的표청社와 PLC(프로그램머블 로직 컨트롤러)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말까지 입출력 점수 1백20점인 고기능 소형 PLC(모델명: 브레인 SPC-100) 2백세트(12만 달러 상당)를 자사브랜드로 輸出키로 했다.
- 同社는 이와 함께 天津自動化的표청과 앞으로의 수요증가 추세를 고려해 수출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중형 PLC인 브레인 SPC-300등으로 수출기종을 늘려 나가기로 합의했는데 중국 PLC 市場은 지난해 4천만달러 규모로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그동안 일본의 미쓰비시·후지·오므론社 등이 장악해 온 것으로 이번 輸出이 국내 PLC업체의 중국시장 개척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展望이다.

### ◆ 金星計電(株), 우루과이에 MCB 輸出

- 金星計電(株) (代表:成基契)가 최근 우루과이 전력청이 발주한 1백만달러 상당의 MCB(초소형 차단기) 국제 구매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오는 7월중 20만 세트를 輸出키로 했다.
- 이번 入札은 국제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었으며 同社를 비롯하여 GE社의 브라질 현지법인, 스페인 메텍스社, 우루과이 코나텔社 등이 참여 하였는데 同社가 유일하게 기술심사에서 합격하는 등 우수한 技術力을 인정받아 외국회사를 물리치고 최종 공급권자로 선정되므로써 우루과이는 물론 남미지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한편, MCB는 세계 각 업체가 生産하는 제품마다 규격이 달라 추가 구매시 기존에 사용하던 회사의 제품을 지속 구매하게 되는데 우루과이가 이번 同社 제품을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 실시할 50만세트의 MCB 구매입찰에서도 同社의 受注가 유력시 되고 있다. 우루과이는 올해부터 모든 가정 및 산업용 빌딩에 대해 분전반설치를 의무화해 MCB 수요가 오는 '97년까지 70만세트에 달할 展望이다.

### ◆ 三星電機(株), 設備投資 33% 擴大

- 三星電機(株) (代表: 尹鍾龍)가 최근 영상부품을 중심으로 전자부품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올 設備投資 計劃을 연초 6백억원에서 8백억원으로 33% 늘리기로 했다.
- 同社는 금년중 소형정밀 모터 생산규모를 연간 1천만개에서 1천5백만개로, MLCC(세라믹칩 콘덴서)등 칩부품을 1억개에서 3억개로, MLB(다층 인쇄회로 기판)를 1만5천m<sup>2</sup>로 각각 늘릴 계획이며 또한 수출증가에 대응하여 동경, 시카고,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외에 홍콩, 오사카, 산타클라라에도 지점을 신설키로 했다.

### ◆ 코오롱 엔지니어링(株), 태국의 남퐁 수처리 설비공사 계약

- 코오롱 엔지니어링(株) (代表: 金溢斗)가 최근 태국 현지에서 EGAT(태국전력청) 수석 부청장과 16억5천만원 상당의 Namphong power plant 수처리설비 2기 계약 조인식을 가졌다.
- 同社는 작년 10월 1기 공사를 성공리에 완공하여 기술력을 대외에 널리 인정받은 바 있어 올 12월말에 工事を 완료할 예정인 2기 공사도 무난히 受注를 했으며 이번 2기 공사는 Cooling Water 처리수 및 Chlorination 設備를 포함한 발전용 냉각수 처리시설을 供給할 예정이며 또한 추가로 Demin 1 Train의 추가계약도 아울러 협의 중에 있다.

### ◆ 京東電業社, 日本에 피뢰기용 탄화규소 輸出

- 京東電業社(代表: 趙亨胤)는 최근 배전선용 피뢰기 2천5백A의 주체 특성요소인 탄화규소를 국산화하는데 成功하여 日本에 연간 1만1개를 輸出하게 됐다.
- 그동안 일본등으로 부터 국내 소요물량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同社의 개발을 계기로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수출증대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 金星機電(株), 配線用 遮斷器 開發

- 金星機電(株) (代表: 金會水)가 최근 10億원의 연구개발비를 投入하여 설계단계에서 부터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配線用 遮斷器(모델명: NFE·S 시리즈)를 開發하여 市販에 나냈다.
- 同製品은 KS규격은 물론 IEC·JIS 규격에 맞게 설계됐으며 차단용량이 1~35KA, 모델수가 37개로 사용자의 선택폭을 넓혔고 특히 내부 부속장치를 모두 카세트 방식으로 만들어 원터치 방식으로 탈착이 가능하고 기존제품과 호환성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차단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모델의 단자높이 및 패널커팅 치수를 통일시켜 분전반의 설계 및 제락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한 것이 特徵이며 이밖에도 아크발생시 에너지흡수체가 신속하게 개스를 냉각하여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고속차단으로 사고파급 영향을 최소화 시켰다.
- 한편 이번에 개발한 이 차단기는 同社가 지난해 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경영기법인 총합 합리화 기법을 적용해 개발한 첫 製品이다.

## 3. 國內外 情報 및 統計

### ◆ 中振公, 中企構造改善資金 1次 支援對象 276社 選定

-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자금 1차 지원대상업체가 선정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추진 서울지역본부 등 10개 지역본부는 5월 18, 19日 양일간에 걸쳐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대상업체 선발을 위한 제1차 선정위원회를 지역본부별로 개최, 276개 업체에 대해 1,601억원의 추천액을 결정했다. 분야별로는 자동화가 198건 1100억7천만원으로 건수와 금액면에서 71.7%와 68.7%를 각각 차지했으며 정보화가 5건 9억 7천만원, 개발기술사업화가 30건 146억3천만원에 달했다. 또 자동화 정보화 동시사업은 22건 148억6천만원, 자동화 개발기술사업화 동시사업은 11건 80억4천만원,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 동시사업은 10건 115억3천만원에 각각 달했다.



- 이번 선정위원회에서 자금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출받을 수 있으며 5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업체들에 대한 제2차 선정심사도 곧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추진 각 지역본부 기업진단팀들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서울 및 9개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접수된 387개 업체에 대해 ▲기업건실도 ▲성장가능성 ▲경영자 자세 등의 항목에 대해 진단을 실시해 기업건실도는 기업 재무구조의 건실성 여부를, 성장가능성은 기업의 잠재 성장가능성 및 산업파급효과를, 경영자 자세는 기업가의 근무자세 및 호화사치 여부, 부동산 과다보유 여부를 각각 평가 대상으로 해 그 결과를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 선정위원회에서는 업체선정에 있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성장유망하며 선도적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특히 절차 및 내용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정대상에서 탈락한 업체는 111개로 탈락 사유로는 ▲경영자자세 27개 ▲기업건실도 40개 ▲성장가능성 및 사업타당성 15개 ▲사업계획 재검토 29개 등으로 나타났다.

#### ◆ 韓國電氣研究所, 시험방법 및 접수 업무제도 개선

- 韓國電氣研究所는 다음과 같이 시험 및 접수 업무제도를 개선하여 '93. 6. 1 부터 시행코자 하였는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사전 시험품목의 일부 면제

-배전반 및 전원장치류 부품으로 내장되는 저압용 변성기류 및 Meter류는 사전시험을 면제하고 조립상태에서 시험토록 함.

##### 나. 뇌충격 및 절연유 검사시험 면제

###### 1) 뇌충격 검사시험 면제 대상

(가) KS 및 “품”자 등급업체가 공인기관 시험 면제 품목을 검사시험 의뢰하는 경우.

(나) 품목 : 변압기류, 단로기류, PF, COS, ASS, LBS, MOF, 변성기류

###### 2) 절연유 검사시험 면제 대상

-유입기기로서 KS 또는 품질등급 획득한 업체가 검사시험 의뢰하는 경우,

다. 시험의뢰 절차 및 시험결과 통지서 발송업무 개선

1) 시험의뢰서 접수 및 시험수수료 입금

(가) 현행과 같이 직접 연구소 내방접수 또는 FAX 및 온라인 입금 이용 접수

① 직접 연구소 내방 접수방법 : 현행과 동일함.

② FAX 및 On-Line 입금 이용 방법

-FAX 전화번호 : 0343) 23-1339

0343) 25-2501 (구내 140)

-On-Line 입금구좌번호 : 국민은행 214-01-0295-511

(예금주 : (재)한국전기연구소)

-은행입금시간 : • 평 일 10:00-15:30

• 토요일 및 체육의날 10:00-11:30

-시험의뢰서를 작성. 연구소로 FAX 발송하여 시험수수료 및 출장비(필요의 경우)를 문의 확인한 후, 시험수수료 및 출장비를 연구소 시험료 구좌에 온라인 송금하고, 입금 확인서를 연구소로 FAX 발송하면, 접수후 영수증 및 접수증을 FAX로 의뢰자에게 발송함. (원본후 추후 시험결과통지서와 같이 우편 송부)

-사용자 승인사양 제출의 생략

• 제조업체의 자체 관리 표준규격을 연구소에 일괄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는 접수시 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험 담당자에게 제출토록 함.

2) 시험결과 통지서 발송

-요구에 따라 직접 수령 또는 우편 발송하고자 함.

-우편 발송요구는 시험의뢰서에 표기하시고, 이 경우 수취인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同 研究所는 개발시험 접수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 시행키로 했다.

## 가. 현행

- 전력시험실 접수 (창원)

- 대전이남지역 제조업체

- 고압 개폐기, 차단기, 휴즈 등 대전력시험 수반 전력기기

- 개발시험실 접수 (의왕)

- 대전이북지역 제조업체

## 나. 개선 : 현행구분을 폐지하고 의뢰업체의 편의에 따라 임의접수

- 창원지역 : 전력시험실 접수

- 의왕지역 : 개발시험실 접수

## ◆ 러 聯, 代替에너지 開發 積極 推進

○ 환경오염 문제와 석유가격의 상승에 따라 러聯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 연료·에너지부의 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대체에너지 부문의 생산량을 연료 및 전력 수요량의 2~3%, 2~5%를 각각 충당하게 될 것으로 연간 전통연료의 5천만t의 절약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 에너지의 개발은 환경 정화, 유기연료 사용 절약, 오지의 에너지 공급문제 해결 등의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軍需산업체의 풍부한 과학기술 및 생산 잠재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 대체에너지 開發 참여 군수산업체

◎ 風力(용량 250~1천 kWh) : Raduga 엔지니어링 디자인 뷰로(모스크바 지역 류브나 소재 항공장비 생산업체), Yuzhnoe 과학생산협회(NPO : 우크라이나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Vetroen NPO(모스크바)

◎ 太陽 에너지 : Astrofixika 항공 NPO

◎ 地熱 터빈(1.5 MW) : Kirov 공장(상트 페테르부르크 소재 최대 기계공장)

◎ 地熱 발전소(0.5~20MW) : Kaluga Turbine 공장(모스크바 지역). 풍력발전소모형(250 kWh)은 크림반도의 다제스탄 지역에 설립될 것이며, 1천kWh의 발전소는 1993~94년경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100kWh용량의 풍력발전소는 우랄지역 여러 곳에서 시험중이며, 60kWh 용량의 설비는 중앙러시아 툴라지역에서 시험가동 중이다. 러시아 군수산업체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 西歐업체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 기술들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독일 Husumer Schiffswer社는 Raduga 항공사와 합작회사를 설립중에 있는데, Raduga社는 風力을 이용한 1천kWh 용량의 발전을 위한 설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회사이다.

○ 또한 US Wind Power(美), Siemens, Messerschmitt(독일), Boelkow Blohn(독일), Danwin(덴마크), LMW(화란)社는 CIS지역내 풍력발전소 공동개발을 추진중이다. 美國 Luz社, 이스라엘 Orma社는 태양열 및 지열을 활용한 에너지의 합작생산에 관한 상담을 진행중이며, 日本 스미토모社와 후지社는 캄차카내 지열발전소 건설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극동지역은 대체에너지 개발 유망지역의 하나인데 캄차카, 사할린, 쿠릴열도 지역의 에너지 소요량을 지열을 활용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로 충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95년까지 지열발전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는 55MW에 달하며, 2000년까지는 200M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지열 발전소가 수년내에 건설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중에는 캄차카 지역소재 무트노브스카야 발전소(25MW), 쿠릴열도소재 오케안스카야 발전소(12MW)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재 캄차카 지역에서 가동중인 파오젠트스카야 발전소는 용량을 10MW까지 증가시킬 예정이다. 또한 러시아 산업계는 0.5, 2, 12, 20MW 용량의 무공해자동 지열 발전소를 개발해 오고 있는 중이다.

○ 오호츠크海 남서부에 위치한 투르크루스키만에 건설계획인 700만kWh 潮力 발전소는 극동지역에서 에너지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것이며, 오호츠크海 북부에 건설할 수천kWh 용량의 펜진스카야 조력발전소도 관심의 대상이다. 또한 55MW 용량의 풍력발전소도 캄차카, 사할린, 프리모리에 지역에 설립하는 계획도 연구중이다. 北部 러시아 지역은 대용량의 조력발전소 건설이 유망한 곳으로 전문가들은 중앙 러시아의 야로슬라블, 블라디미르, 키로프, 니즈니노보고로드 지역의 지열자원을 발견해 냈다. 야로슬라블 지역의 지열발전소는 89년에 건설이 시작되었으나 자금난에 봉착하여 정지된 상태이며, 유사한 발전소 건설이 비이칼호수 주변에

도 계획중이다. 2개의 조력 발전소(톨라 32MW와 메젠스카야 15MW)를 북부 러시아에 건설하는 것도 검토중이고 풍력 발전소를 칼미키야(불가남부), 아르항겔스크지역, 콜라 반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 야쿠트(시베리아) 등 러시아 북서부에 건설할 예정이며, 25MW 용량의 풍력발전소를 코카서스에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도 이미 마친 상태이다. 5내지 6MW 용량의 풍력발전소를 남부러시아 지역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도 검토중이다. 光電子 배터리와 시험적인 태양열 설비에 기초를 둔 1.5MW 태양열 발전소는 북부 코카서스 지역에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소속인구 250만의 크림 공화국도 자체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중인데 12MW 이상의 태양열 발전소 및 12.5MW 風力발전소, 30MW 용량의 지열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다.

- 구소련의 남부소재 공화국들은 전통적으로 태양, 풍력, 지열을 많이 활용해 왔다.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열 용광로가 우즈베크의 타슈켄트에 소재하고 있으며, 우즈베크 태양열 발전소(30MW)의 연구는 경제적, 기술적 이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광활한 영토를 보유한 러시아의 대체에너지 자원은 풍부하고 또한 관련 기술개발도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로 부터 관련 기술자의 유치, 프로젝트의 공동개발 참여 등을 통해 관련 기술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 日 電機業界, 亞서 ISO 規格 취득분

- 일본 전기업계가 아시아의 생산거점에서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규격 'ISO9000' 시리즈의 인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보증규격은 유럽시장 등에서 거래조건의 하나로 정착돼 가고 있어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일본내에서 취득이 쇄도하고 있는데 주요 제조·수출거점인 아시아지역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 NEC는 태국의 NEC 테크놀로지즈 타이에서 개체탄타르칩컨덴서에 대해 'ISO9002'의 규격을 취득한데 이어 최근 홍콩의 NEC 테크놀로지즈 홍콩에서 취득 준비를 시작했다. 또다른 아시아지역에서도 앞으로 구체적인 취득 준비를 시작키로 했다. 이 회사는 이미 일본내에선 사업부 및 관계회사를 포함 43개 사업체가 ISO규격의 인증을 취득한 실적을 갖고 있다. 반도체

사업부는 5월중 일본 전역의 공장에서 취득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외의 제조거점에서 인증취득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세이코엡슨은 지난달 싱가포르 엡슨에 있는 타밀 프린터회로기판의 제조부문과 관련, 'ISO9002'의 규격인증을 취득했다. 작년말에도 프린터를 생산하고 있는 홍콩과 중국의 현지 법인에서 같은 규격의 인증을 취득했다. 샤프도 TV, VTR, 라디오카셋 등을 제조하고 있는 해외 최대 규모의 생산거점인 말레이시아의 공장외에 한국, 대만에서 ISO규격의 인증을 취득했다.
- 일본빅터는 '94년말까지 내외의 전사업소에서 'ISO9000'을 취득키로 했다. 현재까지 일본내 2개 사업소가 'ISO9001', 해외 3개 사업소가 'ISO9002'의 인증을 취득했다. 빅터의 사업부에서는 비디오사업부와 무비사업부가 '92년 5월에 'ISO9002'의 인증을 취득했다. 금년 4월엔 개발·설계에서 애프터서비스까지 'ISO9001'를 취득했다. 해외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의 3개 법인이 금년 3월 'ISO9002'의 인증을 취득했다.
- 유럽의 심사등록기관의 하나인 에스 지 에스 야즈레는 "아시아지역의 수요급증을 감안, 최근 2년간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등 8개소에 ISO 심사등록업무 취급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규격 취득 열기가 고조돼 있음을 강조했다.

#### ◆ 中南美 單一市場化 可能性

- 앞으로 中南美와 美國시장이 동일경제권의 성격을 띠면서 경제적 긴밀성이 한층 강화되는 것을 바탕으로 中南美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응체제를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산업연구원은 중남미시장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해 최근 중남미 각국은 과거의 자유무역추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90년대중 중남미 전체가 단일시장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중남미시장의 단일화는 역내공업국과의 경쟁심화, 지역주의화에 따른 對韓수입국의 수입전환 가속화, 현지투자를 확대하는 선진국기업의 중남미수출시장 잠식등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긴급하다고 주장했다.

○ 산업연구원은 장기적인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시장다변화 노력과 함께 특히 중남미의 소량다품목수입 특성에 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차별적으로 중·저급보다 고부가가치상품으로 수출상품을 특화하며 수출경쟁력 강화효과가 큰 공동사업 확대를 통해 '생산·관리컨소시엄' 형성을 적극 추진, 고급상품 중심의 고유수출시장을 확보하는 수출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중남미투자도 단순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보다는 통합체별로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업종,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목적에 따라 전략적 투자대상업종 및 거점국가를 선정, 현지화를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통합체별 전략적 수출확대 대상품목으로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94년 12월 통합)의 경우 음향기기·가정용기기·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통신기기·영상기기·중전기기·자동차·자동차부품·일반기계·정밀기계·신발·문구용품·인조섬유직물·인조섬유사·플라스틱·타이어·석유화학 및 유기화학제품 등을 꼽았다. 또 ANCOM(안데안공동시장 : 베네수엘라·페루·콜롬비아·에콰도르·볼리비아, '93년 12월 통합)은 통신기기·전자부품·음향기기·중전기기·자동차·자동차부품·신발·인조섬유직물·타이어·석유화학제품, G3(中美3국 : 멕시코·콜롬비아·베네수엘라, '93년 12월 통합)는 통신기기·컴퓨터·음향기기·가정용기기·전자부품·일반기계·자동차부품·신발·철강판·인조섬유직물·인조섬유사·타이어·석유화학 및 유기화학 제품등을 꼽았다.

#### ◆ 중국 福建省 60만kW급 원자력발전 건설 계획

○ 중국(福建省)은 제5차 5개년계획(1996~2000)년중에 60만kW급 원자력 발전 2기를 福建省 惠安縣 由前村에 건설할 계획을 확정하였다. 총 투자액 60억원으로 복건성은 외자를 도입하여 건설할 계획이다. 원자력 발전 건설에 관해서 중국은 종래 프랑스의 자본과 기술을 주로 도입하여 왔으나 대만(臺灣)에의 전투기 매각문제에 대 프랑스 자세를 강화시키고 있어 복건

성 원자력 발전에서는 일본, 독일, 미국이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다. 이미 복건성은 초보적인 기업화 조사가 거의 종료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하여 由前村의 지질구조는 안정되어 있어 강한 지진이 일어나도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고 한다. 또한 환경평가등도 종료되어 있어 향후 상세한 설계와 자금조달 등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 중국은 '91년말에 완성한 浙紅省의 泰山원자력발전(30만kW급 1기)에 이어 廣東省의 大亞灣 원자력발전(90만kW급 2기)을 금년 완성시킬 계획이다. 더우기 작년 泰山 2기 원자력발전(60만kW급 2기)의 기초공사에 착공하였다. 또한 遼寧省에도 90만kW급 원자력발전 2기를 건설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山前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계속 국가계획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福建省 수준(Level)에서 자금조달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정부는 작년 후반부터 원자력 발전 건설을 서두를 자세를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미 10개이상의 지방정부가 원자력발전 건설에 희망을 제출하고 있다.

#### ◆ 日, 印尼 發電事業 進出

- 일본의 미쓰이물산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전사업에 진출한다.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GE)등과 협력, 총액 20억달러를 투입하여 오는 97년 완공을 목표로 122만KW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 동사는 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인도네시아전력공사에 유료로 공급, 사업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 발전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은 미쓰이물산, GE외에 美미션 에너지의 네덜란드내 자회사와 현지자본인 파츠 비탐 페르카사등 4사로 알려졌다. 이들 4사는 합작회사 'PT 파이트 에너지'를 설립할 예정이며 출자비율은 GE와 미션 에너지가 각각 32.5%씩, 미쓰이물산 20%, 바츠 비탐 15%로 짜여져 있다. 또한 발전소 건설에서 운영·소유에 이르는 모든 작업은 PT파이트 에너지가 담당하게 된다. 20억달러의 사업자금은 美수출입은행 등의 용자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주로 미일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등 민간협조 용자가 활용될 예정이다.



- 한편, 일본의 마루베니(丸紅)상사와 미국의 밥콕 & 윌콕스(B & W)사는 인도네시아의 수탈라와 전력으로 부터 800억엔 규모의 발전기 공급계약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자바서부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에 60만KW급의 발전기 3대를 공급하게 된다.
- 이번 계약은 오는 '98년까지 실시되는 발전설비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으로 이 계획이 완료될 경우 수탈라와전력은 연간 340만KW의 발전능력을 보유, 동남아시아 지역의 최대 발전소로 부상하게 된다.

#### ◆ 中國, 輸入關稅면제등 7大특혜 발표

- 중국 福建省 장조우경제개발구 당국은 최근 토지사용료면제, 수입관세면제, 소득세감면 등 다음의 7가지 특혜조치를 국내의 투자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 중국은행(BOC)과 중국상업회사(CMC)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 운영하는 장조우경제개발구내에 입주하는 국내외기업들은 기업설립 기간중 토지사용료를 면제받는다. 수출지향적 또는 기술집약적 기업으로서 계약기간이 10년을 넘는 기업은 5년간 토지사용료를 면제받는다. 또 과학, 교육, 문화, 건강, 항구, 하이웨이 등의 프로젝트에 진출하는 기업도 토지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외국인투자자들은 서비스, 주거지 및 부동산 등의 3차산업 프로젝트에 진출 할 수 있다. ▲ 외자기업들이 전체 자본투자액의 한도내에서 기계, 장비, 각종 차량, 전자재, 중간재, 생산용 부품 및 포장재, 사무기기, 일상용품 등을 수입할 때 관세와 工商통일세가 면제된다. 또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시에도 관세와 공상통일세가 면제된다. ▲ 계약기간이 10년이상인 기업으로서 생산성이 있는 기업은 수익을 남기기 시작한 해로 부터 첫 2년간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그 뒤 3년간은 소득세 반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간 생산액의 70%를 수출하는 기업도 소득세 반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술집약적 기업의 경우 면제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간의 추가적인 소득세 반감혜택을 받게 된다. ▲ 외국기업들은 수익재투자의 일환으로 5년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소득세중 4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수출지향 및 기술집약적 프로젝트에 대한 재투자방식으로 소득세의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외자기업으로서 경영적자 상태에 빠진 기업은 다음 해의 수익으로 체불된 세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연

장 기간은 5년이다. ▲ 국내외기업들은 지방소득세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타 경제특구 내 기업들에 비해 지방소득세가 높은 경우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 美, 日産 電動工具 덤핑판정

- 美 상무부는 마키타등 일본産 전동공구에 대해 최종적으로 덤핑판정을 내렸다. 덤핑마진율은 전동공구 코기리가 54.43%, 그라인더가 46.75%로 모두 지난해의 假결청때보다 그 수치가 올라갔다. 이에 따라 7월초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으로 미국 산업계의 피해가 인정되면 일본 전동공구의 對美 수출에는 덤핑마진 상당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일본 전동공구에 대한 덤핑제소는 세계 최대의 전동공구업체인 블록 앤드 데커社가 지난해 5월말에 상무부와 ITC에 제기한 것으로 이에대해 상무부 및 ITC는 지난해 모두 덤핑가결정 판정을 내린 바 있다.

### ◆ 멕시코 電力시장 外國人에 개방

-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멕시코가 자국의 발전소 건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개방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방의 유력 자본들이 몰려 들고 있다. 작년 연말 멕시코 정부가 자국의 발전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 이래 약 40개 이상의 관련 외국인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최근 멕시코 코아후일라州에 위치한 카본 II라는 발전소를 민영화하기로 결정, 로스엔젤레스의 기업인 SCE, 미션 등 외국인 기업에 16억달러를 받고 매각했다.
- 이 발전소는 앞으로 생산전력의 상당부분을 멕시코 정부에 공급기로 30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제네럴 일렉트릭, 엘파소 천연가스, 코스탈, ICA, 비첵 등 멕시코 국내의 유력 컨소시엄 기업들도 엘파소 국경지대인 사말라유카에 7백메가와트급의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모두 6억달러를 투자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엔론, 산디에고 가스 앤드 일렉트릭, 씨던 코스 등 다른 전력관련 기업들도 멕시코 투자를 위해 투자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참여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 ◆ 濠, 한국산 절연전선 덤핑 무혐의 判定

- 濠洲관세청(ACS)은 지난 2월 호주연방 법원의 재심결정에 의해 조사를 재개한 한국산 저압 절연 전선제품에 대해 덤핑 무혐의 판정을 다시 내렸다. 지난 '88년부터 '91년까지 이미 세차레나 덤핑제소를 당해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이 제품은 최근 호주연방법원의 재조사결정으로 호주관세청이 내번재 조사를 재개했으나 이번에 다시 무혐의판정을 받은 것이다.
- 한국측 피소업체는 대성전선으로 지난해 이 제품의 對호주 수출실적이 180만달러 정도이며 올해도 약 200만달러 정도 수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호주측 제소업체인 MM케이블등 현지업체들이 또 다시 호주반덤핑청등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호주업체들의 반덤핑 제소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 英 C & W, 홍콩텔레콤社와 합작

- 영국의 통신회사인 케이블 & 와이어리스(C & W)社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통신시장 진출을 위해 홍콩의 텔레콤社와 합작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사관계자는 새로 설립되는 합작기업의 지분은 동사가 51%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동사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홍콩 텔레콤社가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동사는 지난 '88년 홍콩 텔레콤을 설립, 홍콩시장에 진출한 이후 필리핀, 중국, 태국, 마카오 등지에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아시아지역에 대한 사업을 적극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 獨 지멘스, 말聯에 발전소 건설

- 독일 지멘스社는 말레이시아 국영전기회사인 테-나가 나시오날社와 계약을 체결, 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스터빈발전소를 건설키로 했다. 모두 3억마르크가 투입돼 콜라룸푸르 근교 세르당에 건설될 이 프로젝트는 내년말께 완공될 전망이다. 최근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 ◆ 中國, 蓄電池 工場 稼動

- 중국 최초의 니켈-하이드로젠 축전지 공장이 중국 북부 항구도시 天津에서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공장의 연간 생산케퍼는 다양한 형태의 니켈-하이드로젠 축전지 50만 그램정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天津 공장에서 생산에 들어간 니켈-하이드로젠 축전지는 기존의 니켈-카드뮴 축전지보다 용량이 1.5-2배 크면서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 커다란 장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니켈-하이드로젠 축전지는 전자 통신 군사용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소형컴퓨터, 무선 전화기, 라디오, 가전제품 및 사무자동화기기 전원등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니켈-하이드로젠 축전지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天津에 국영 에너지축적 기술연구소를 설립 키로 했다.

### 中國의 入札안내

中國國際地下鐵그를 有限公司는 중경의 朝天門에서 沙坪까지의 地下輕便輸送시스템을 건설 할 예정이다. 16.58km 길이의 이 지하철 프로젝트는 국무원과 국가계획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으며 오는 '98년까지 완공되어 운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기계·전기설비는 전품목 국제입찰을 통해 조달할 계획인데 대상품목 및 입찰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입찰대상품목 : 차량, 통신시스템, 고중압볼트 AC 전력공급시스템, 트렉션전력공급시스템, 제3철도의 전력공급시스템, 전기감시·제어시스템, 환경제어시스템, 화재·재해방지를 위한 환경 감시·제어시스템, 차량보수 부문설비, 에스컬레이터, 자동차표판매·검사시스템, 터널건설용설비.

△ 입찰사전자격심사(PQ)서류 제출마감 : 9월 1일 오후 6시

△ 주소 : 中慶市中央區人民路 123

△ TEL : (81)356566, 351577-319

△ FAX : (81)351345

△ 우편번호 : 630015

△ 문의 : Shen Xiayang

국 명	실 시 기 관	입 찰 품 목	입 찰 마감일
미 안 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NING ENTERPRISE</li> <li>· TEL : 57457</li> <li>· TLX : 21511 MCTWD B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RBON BRUSH FOR SYNCHROMOUS MOTOR</li> <li>• AIR CIRCUIT BREAKER</li> <li>• POTENTIAL TRANSFORMER</li> <li>• FUSES, LAMPS RELAYS</li> <li>• CABLE AND ACCESSORIES</li> </ul>	'93. 6. 18
페 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MPRESA MINERA DEL CENTRO DEL PERU</li> <li>· TEL : 355467</li> <li>· TLX : 21407 PE CENTROMI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TROL PANEL</li> <li>• CURRENT TRANSFORMER</li> <li>• POWER SWITCHES</li> </ul>	'93. 6. 22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NISTRY OF MINES AND ENERGY</li> <li>· TEL : 7397765</li> <li>· TLX : 4715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BSTATION AND TRANSFORMER</li> </ul>	'93. 8. 9
인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ARNATAKA ELECTRICITY BOARD</li> <li>· TEL : 0812-215187</li> <li>· TLX : 0845-243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PACT SUB-STATION WITH LOAD BREAK SWITCHES</li> </ul>	'93. 6. 16
파 키 스 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APPHIRE POWER GENERATION LIMITED</li> <li>· TEL : 872901</li> <li>· TLX : 47308 BLUBL PK</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WER PLANT</li> </ul>	'93. 6. 19
쿠 웨 이 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UWAIT OIL CO.</li> <li>· TEL : 39891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WER CABLE</li> </ul>	'93. 6. 13

## ◆ 振興會 消息

### 서울국제 종합전기기기전 개최

-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국내 전기기기 산업의 기술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외국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동향을 국내에 소개할 수 있도록 전기기기 국제종합 전시회를 개최기로 했다.
- 전기에너지의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동력제어등에 사용되는 각종 중전기기의 수요가 점차 단품위주에서 시스템위주로 변모되어 가고 있고,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추진에 따라 국내시장 개방이 불가피해 지고 있으므로 국내 중전기기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수입대체와 수출증진을 위해 '94년부터 『서울국제 종합전기기기전』을 개최토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94. 7. 5 부터 7. 9 까지 5일간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될 제1회 『서울국제 종합전기기기전』에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동력제어등 관련 각종 전기기기를 생산하는 국내의 150여개사를 참여 유치하고, 부대행사로 전기기술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 동 전시회는 상공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공업진흥회와 대한무역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하게 되며 전시회 개최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기조합, 전선조합 등 전기기기 생산자 관련조합이 협찬하고,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등 전기기기 수요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도 홍보관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전기안전사고 방지등 대국민 홍보도 함께 할 계획이다.
- 이에따라 지금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어오던 서울국제 산업전력전은 『서울국제 종합전기기기전』으로 통합운영할 방침이다.

## ◇ 서울국제 종합전기기기전 개최계획 ◇

### 1.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중전기산업이 세계 12위권으로 성장하였으나

- 내수 및 관납위주의 성장으로 수출경쟁력이 미흡하고

- 기술도입에 의한 조립위주 성장으로 핵심소재 및 부품제조기술이 취약하며

- 정부조달협정 가입추진으로 국내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므로

⇒ 기술개발을 요체로하는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여 수출산업화 및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동향 소개와 국내 기술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국제전시회 개최 필요

○ 중전기 산업계에서 내실있는 국제전 개최를 위해 중전기 관련단체의 주관 희망

- 국내 기술력의 체계적 홍보 및 바이어의 지속적 사후관리 가능

#### 〈전기기기 생산자 관련단체 중심의 국제전 개최 필요〉

○ 주최 : 상공자원부      ○ 주관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대한무역진흥공사

○ 협찬 및 후원 : 전기조합, 전선조합,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 개최주기 : 격년제 개최 (제1회 : '94년 7월 개최계획)

○ 전시품목 :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동력제어용 관련기기 일체

### 2. '94 서울국제 종합전기기기전 개최계획

○ 기간 : '94. 7. 5~7. 9 (5일간)

○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 태평양관

○ 규모 : 10,368m<sup>2</sup> (3,142평)

○ 추진기구

- 주최 : 상공자원부      - 주관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대한무역진흥공사

\* 협찬 및 후원기관 (단체)에서 홍보관 설치운영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 참가업체 : 총 150개사 유치계획
  - 국내 : 120개사
  - 외국 : 15개국 30개사 (미국, 일본, 독일, 영국등)
- 전시품목 : 발전기, 전동기, 전동공구, 변압기, 차단기, 무정전전원장치, 전력제어기기, 전선류, 축전지, 건전지 등
- 관람예상 : 100,000명 (내국인 : 97,000명, 외국인 : 3,000명)
- 상담목표 : 2억불 (수출 : 1억불, 수입대체 : 1억불)
- 부대행사 : 전기기술 세미나 개최
  - 2000년대 중전기기 핵심분야 발전 예측
  - 제어계통 손상방지를 위한 발·변전소의 전자차폐기술 등 생산기반 기술

### 3. 전시회개최 기대효과

- 수출증진 및 수입대체 촉진으로 중전기기 무역역조 개선 기반구축
  - 국산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 확인기회 제공
-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화 전기마련
  - 해외 선진업체 제품소개 및 상호협력 기회 제공
- 전기절약의 필요성 및 전기안전사고 방지등 대 국민제도 및 홍보
  - 관련기관(단체)의 홍보관 설치 운용

### 韓電 R & D 資金 支援對象 課題 選定

-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의거 중전기기 기술개발을 위하여 韓電에서 지난 '91년부터 5年동안 매년 200億원씩 1,000億원을 支援키로 하고 그동안 重電機器 기술개발 자금으로 106개 과제에 600億원의 R & D 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단계로 300억원 규모를 추가 지원키로 함에 따라 韓國電機工業振興會 에서는 이 자금의 지원 대상과제를 업계로부터 발굴, 현재 지원대상 과제 선정에 착수했다.



○ 제2단계 한전 R & D 자금 300억원의 지원 대상과제 선정 및 지원 일정

- 지원대상과제 선정(전기공업진흥회) : '93. 6. 12까지
- 지원대상과제 공고(상공자원부) : '93. 6. 19
- 업계로부터 과제 신청접수 (한전 기술연구원) : '93. 7. 16
- 업체별 연구개발 대상과제 확정 및 연구착수 (한전 기술연구원) : '93. 9. 18

□ 경쟁국(대만, 싱가포르, 일본)의 電氣機器 수출동향

○ 韓國電機工業振興會가 조사한 주요 경쟁국의 수출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電氣機器의 수출규모는 792백만불로 주요 경쟁국인 대만의 2,414백만불, 싱가포르 1,562백만불, 일본 10,045백만불(이상 '92년말 현재)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중전기기는 430백만불로 대만 1,914백만불의 23%, 싱가포르 1,382백만불의 32%, 일본 8,679백만불의 5% 수준인 반면 전선은 353백만불로 대만, 싱가포르, 일본 수출규모 대비 각각 71%, 183%, 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경쟁국의 수출동향 비교 (단위 : 백만불, %)

구 분	한 국		대 만		싱가포르		일 본	
	'91	'92	'91	'92	'91	'92	'91	'92
총 계	751	792 (5.5)	2,199	2,414 (9.8)	1,562	1,562 (-)	9,222	10,045 (8.9)
중 전 기 기	468.8	439.3 (-6.3)	1,701.9	1,914.1 (26.5)	1,370.3	1,382 (0.9)	8,050	8,678.6 (7.8)
발 전 기	21.2	20.6	7.6	8.7	63.3	116.7	475.7	577.3
전 동 기	49.0	43.9	311.3	303.5	288.1	295.9	1,538.5	1,650.1
전 동 공 구	11.6	17.1	63.0	89.7	73.9	74.4	626.2	692.9
변압기(변환기기)	334.2	314.4	863.8	990	489.1	413	1,778.6	1,822.6
차 단 기	17.4	14	48.5	47.6	204	223.2	318	281.6
개 폐 기	7.8	7.3	372.3	415.1	204	223.2	2,537.3	2,863.9
용 접 기	15.6	10.4	22.5	42.1	30.1	24.1	574.9	591.3
전 기 로	12.0	11.6	12.9	17.4	17.8	11.5	200.8	198.9
전 선	282.2	352.7 (25.0)	497.1	499.9 (0.6)	191.7	180 (-6.1)	1,172.0	1,366.4 (16.6)

<안내>

한국전력공사 개발시험 대상품목중 시험사용 대상품목으로 운용하고 있는 품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규격	품명	기간	수량
ESB130-865	LINE POST 애자	1년	2,000개
ESB131-130	옥외용지지에자 (TR-208)	3년	100개
구매규격	내외손용 결합애자	1년	7,000개
구매규격	장간형 현수애자	1년	1,500개
구매규격	저손실형 일단접지주상변압기	6개월	용량별, 규격별 10대
구매규격	자가진단형 일단접지주상변압기	6개월	용량별, 규격별 10대
ESB153, 261, 282	GAPLESS 피뢰기	1년	500개
구매규격	전선휴즈	6개월	규격별 500개
구매규격	압축형 이질금속스리브	6개월	규격별총계 3,000개
구매규격	RECLOSING SECTIONALIZER	1년	10대
구매규격	특고압수밀형 절연동전전	1년	1,500m

□ 韓電 購買制度 改善 推進現況

○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서는 우리 중전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애로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업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지난 '91. 10부터 전기공업진흥회내에 『중전기 산업발전 연구단』를 구성하여

-제1차로 민수용 중전기기의 시험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92. 5. 4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검사는 이를 면제토록 하고,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납품이 가능토록 개선한데 이어

-제2차로 한전 납품과정에서의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건의한 결과 현재 한전에서 개선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별첨 내용은 상공자원부에서 지난 '93. 3. 8 한국전력공사에 개선토록 공식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한전에서 현재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전 업무에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평소 업계에서 겪고 있는 현안,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전기공업진흥회에 수시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제도 개선요청에 대한 한전 개선방안

개 선 요 청 사 항	한 전 의 개 선 방 안
<p>1. 물품구매예시제도 개선</p> <p>○ 업체요구</p> <p>    - 예시품목 확대</p> <p>        · 발·변전소 건설 등에 소요되는 기자재           및 배전자동화 등 신제품 구매계획 등</p> <p>    * 예시기간 연장 : 3년 → 5년</p> <p>    - 구매계획 (구입년도, 물량)       변경시 사전홍보</p>	<p>○ 업체 요구 수용</p> <p>    - 예시품목 확대 : '94년 구매분부터</p> <p>    - 예시기간 연장 : 5년으로</p> <p>    * 물품관리법 시행령 20조 개정필요 (재무부)</p> <p>    - 구매계획 변경시 관련조합 및 업체에 변경내용 통보</p>
<p>2. 종합낙찰제의 예정가격 결정방법 개선</p> <p>○ 현행 : 가격+성능+품질을 고려</p> <p>    요구 : 가격+성능+품질+손실절감           (성능향상) 고려</p>	<p>○ 검토후 수용</p> <p>    - 검토가 필요한 내용 : 기술개발로 인한 손실절감 (성능향상)분을 원가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p> <p>    - 시행시기 : '93. 6</p> <p>    * 재무부의 「종합낙찰제시행기준」 개정필요</p>
<p>3. 규격 및 가격 입찰서 분리 투찰</p> <p>○ 현행 : 규격 및 가격을 동시에 투찰</p> <p>○ 요구 : 규격입찰후 가격입찰 실시</p> <p>    * 대상품목 : 발전소용 전기기자재</p>	<p>○ 수용불가</p> <p>    - 발전소용 전기기자재는 입찰시 규격 승인 과정에서 변동요인에 대한 「입찰가격 증감내역 제출」이 가능하므로 수용 곤란</p>

개 선 요 청 사 항	한 전 의 개 선 방 안
<p>4. 물품구입대금 지급방법 개선</p> <p>가. 물품구입대금 선금 및 기성금지급</p> <p>-현행 : 선금 및 기성금 지급이 없고 납품 후에는 80%는 어음지급</p> <p>-요구 : 선금 및 기성금 지급</p> <p>나. 기성금 지급</p> <p>-'92년부터 기성금 지급 중단</p> <p>다. 현금 지급비율 확대</p> <p>현행 1억원이하 : 전액현금 1억원이상 : 현금 20%, 어음 80%</p>	<p>○ 일부수용</p> <p>-한전의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선금 및 기성금 지급</p> <p>-어음지급비율은 축소시행</p> <p>○ 보완후 수용</p> <p>-기성금 지급대상, 기준, 방법을 보완하여 '93. 7부터 지급</p> <p>○ 업체의견 수용</p> <p>1-3억원 : 전액 현금 3-6억원 : 현금 50%, 어음 50% 6억원이상 : 현금 20%, 어음 80%</p> <p>* '93. 5부터 시행</p>
<p>5. 한전의 구매규격을 국제규격과 호환성 부여</p> <p>기존규격 : 국제규격, KS등과 호환성 부여</p> <p>신규규격 : 단체규격을 제정 우선 사용후 한전규격으로 격상</p>	<p>○ 보완후 수용</p> <p>-전기공업진흥회에서 마련중인 규격개선(안)을 참고하여 개선</p> <p>* 진흥회에서 제정 예정</p>
<p>6. 국산기기 개발시 개발시험비 한전부담</p> <p>현행 : 업체에서 개발시험비 부담 (년 20억 수준)</p> <p>요구 : 한전에서 선부담 (원가계산시 시험비용 삭제)</p>	<p>○ 보완후 수용</p> <p>-생산업체가 과다하여 개발시험비를 한전이 부담곤란</p> <p>* 원가산출시 개발시험비 반영</p>

개 선 요 청 사 항	한 전 의 개 선 방 안
<p>7. 개발시험 면제대상품목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 전주, 강압기 등 30종</li> <li>○ 요구 : 전기기자재까지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계의견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면제 : 알미늄선용 압출스리브 등 47개 품목</li> <li>- 시행시기 : '93. 6</li> </ul> </li> </ul>
<p>8. 재개발시험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인 재개발시험 요구조항 삭제</li> <li>○ 부품 국산화 등으로 인한 재개발 시험 조항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안 수립 : '93. 5</li> <li>- 개선방안 확정 및 시행 : '93. 6</li> </ul> </li> </ul>
<p>9. 중복시험의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검사 절차 중간검사  업체자체검사  외관, 수량검사  검수시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계의견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방법 중간검사  업체자체검사  외관, 수량검사                    동시  검수시험                            수행</li> <li>- 시행시기 : '93. 7</li> </ul> </li> </ul>
<p>10. 우수제품의 검수시험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 전선류 등 11종 45개품목은 검수 시험면제</li> <li>○ 요구 : K.S 품자획득 등 국가공인 규격 품은 검수시험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완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면제품 관리방안 마련후 『검수시험면제』 품목확대</li> <li>- 시행시기 : '93. 9</li> </ul> </li> </ul>
<p>11.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검수시험면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압기 : 권수비 시험</li> <li>- 가스발전소 : 기밀시험</li> <li>- 발전기, 전동기 : 내압시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계 의견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검사와 검수시험이 중복되는 품목에 대한 시험항목을 『시험성적서』로 대체</li> <li>- 시행시기 : '93. 5</li> </ul> </li> </ul>

## □ 重電業界 懇談會 開催

-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93. 5. 21(금) 08:00~09:30까지 무역회관 무역클럽 51층에서 商工資源部 朴三圭 第2次官補, 李熙範 電子情報工業局長, 李愚公 電機工業課長 및 重電業界 代表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重電業界 대표들은 업계의 80% 이상이 경인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험검사를 창원 전기연구소에서 하고 있어 교통체증·시험지연에 따른 손실이 막대하다고 지적하고 수도권에 시험연구소를 설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과 관련 국내 업계가 선진국 기업에 비해 국제경쟁력 및 기술수준이 크게 뒤진데다 판매의 대부분을 관납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진흥회를 주축으로 '2천년대 중전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키 위해 연구기관등을 통해 용역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나 재원마련이 어려우니 만큼 한전에서 지원되는 연구개발자금중 일부를 지원해 주고 중전기기업계에도 공업발전기금등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지원해 줄 것과 내년부터 개최되는 '종합전기기기전'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책" 참조)

### ◎ 국산개발 품목 알림 ◎

韓國電力公社에서는 345KV 지중선 건설에 소요되는 "밀폐형 방재트라후"를 국산 개발 사용군자 구매규격서를 제정하여 개발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진흥회에서는 구매규격을 입수, 비치해 놓고 있는 바 개발희망 업체의 많은 열람 있으시기 바랍니다.

◎ 농촌일손돕기 및 농기계 보내기 운동참여 요청

최근 우리농촌은 이농현상과 노령화·부녀화 등으로 인하여 농촌인력이 부족해서 휴경지가 늘어나고 적기영농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더우기 모내기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이 더욱 심화되므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별첨과 같이 농촌일손돕기와 농기계보내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바, 회원업체에서도 적극 참여하시어 동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종합 물품구매계획서 열람 안내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자료실에는 조달청발행 '93년도 정부종합 물품 구매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는 바, 관심있는 회원업체의 활용있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제안 제도 실시 안내

정부는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종 불편, 불만사항, 제도개선이 미흡한 사항, 행정제도·형태·관행 등이 국민편의 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었던 사항등을 과감히 발굴 이를 적극 개선하고자 국민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新韓國 創造」의 주역으로서 행정쇄신 작업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평소 느끼고 있는 행정개선 방안과 경륜들을 거리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합동민원실 국민제안 특별창구 (Tel : 735-0114, 735-0124)